

# 아동, 청소년 및 노인이 지각한 노인 특성의 비교

정영숙\*

김인주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 291명과 노인 103명을 대상으로 양극형용사를 사용하여 노인과 관련된 7개 영역에서 지각된 노인 특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초등학생 그리고 노인에 비해 7개 영역을 종합한 지각된 노인특성 전체 점수에서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노인특성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노인의 신체 특성은 다른 어느 영역보다 발달적으로 일찍부터 가장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에 관한 일반적인 인상은 발달적으로 가장 늦게까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각한 현재 노인에 대한 평가에 비해 지각된 자신들의 미래 노인 특성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특성 지각에서의 발달적 추이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노인 특성 지각, 노인 특성의 하위 영역, 지각된 미래 노인특성

사회의 구성원들이 노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또는 노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현재 노인의 삶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노화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이 노화나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노인에 대해 정서적 친근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노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반면에, 젊은 세대가 노인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 태도나 이미지는 노인과 상호작용을 기피하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의 가치를 격하시키며, 노인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김영숙, 2002).

노인 특성에 관한 지각이나 노인에 대한 태도, 또는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지닌 부정적인 특성으로 초라하고, 아프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정영숙, E-mail: yschong@pusan.ac.kr

며, 불결하고, 매력 없고, 무능력하고, 신체적으로 약하며, 성적으로 무능하고, 정신적으로 느리고, 잘 잊어버리며, 새로운 것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잔소리가 많고, 고립되어 있으며, 불행하고, 비생산적이라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Butler, 1975; McTavish, 1971; Nuessel, 1982; Seefelt, Jantz, Galpur, & Serock, 1977).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보고되고 있다(윤진, 조석미, 1982; 조명희, 1974; 차용은, 1981).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며, 성적 관심과 잠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며, 학습능력과 기억능력을 포함해서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학자도 있다(Palmore, 1999).

개인적 능력이나 기능, 기술에 관계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늙어 보인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연령차별 의식(ageism)은 노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으로 하여금 자기비하, 고독감, 소외감, 격리감 등을 겪게 할 수 있다(Crandall, 1980; Ward, 1979). 노인이 지닌 개별적 역량과 특성을 무시한 채, 사회 구성원들이 지닌 노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차별로 인해 수많은 노인들의 삶의 성장 기회가 위축된다는 것은(Belsky, 1999; Butler, 1975), 노인에 대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지닌 태도와 인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 인구고령화라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상되면서 노인에 대한 지각된 이미지나 태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의 주된 관심은 특정 연령집단(예,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교, 아동 등)이 노인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

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고(곽필선, 1989; 서병숙, 김수현, 1999; 이미정, 1996; 이은미, 1990; 정미선, 2000; 조명희, 1974; 차용은, 1981; 편재희, 1999; 한정란, 2000), 지각된 노인 특성을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김영숙, 2002; 신귀연 1995; 이선자, 1989). 노인이미지나 태도에 대해 발달적으로 접근한 이 연구들도 일차적 관심은 연령집단 간에 지각된 노인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기에, 발달적 변화가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하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령에 따라 노인세대와의 경험이 달라진다. 어릴 때에는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점차 청년이 되어가면서 자신과는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며 행동양식과 추구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인이가 되면 이제 노인은 자신들이 부양해야 될 대상이 된다. 나이에 따라 개인에게 주는 노인의 의미가 달라지면 그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도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때 가졌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청년기를 거치면서 부정적으로 될 수 있고, 더 나이가 들면서 다시 긍정적으로 되거나 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젊은 세대가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라 해도, 자신의 미래 노인이미지는 긍정적일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지각된 특성이 시간을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에서이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귀연(1995)의 연구에서는 기능성 차원(기능적-비효율적), 자율성 차원(자율적-의존적), 수용성 차원(수용적-거부적), 내향성 및 수동성과 조심성 증가 차원을 포함시켜 5점 척도 상에서 여성노인

과 남성노인을 평정한 결과, 아동이 청소년보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모두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도시와 농촌에 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숙(2002)의 연구에서는 평가적 요인에 속하는 형용사(나쁘다-좋다, 어리석다-현명하다)와 활동성 요인에 속하는 형용사(느리다-빠르다, 약하다-강하다) 17개를 사용하여 지각된 노인 특성을 조사한 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 학생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노인에게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자(1989)는 노인과 관련된 8개 하위 영역(노인에 대한 전망과 이미지, 노인의 신체적 특성, 지적 능력, 성격특성, 적응 및 대인관계, 은퇴 및 경제적 능력, 가족관계 및 노인복지 영역)을 나누어, 연령에 따른(아동, 청소년, 성인기, 중년기 및 노인기) 평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노인 특성 지각에서 가장 발달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선자의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지각된 노인 특성을 발달적으로 살펴볼 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선자의 연구는 하위 영역 별로 지각된 노인 특성을 분석하되 그 관심은 각 영역에서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느냐를 살펴보는 것에 있었기에, 8개 영역을 종합하는 전체 양상을 분석해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둘째, 이선자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집단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지 않아,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인 지각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없었다.

노인 특성 지각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발달적 관점이 부족하였다는 것 이외에,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각된 노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된 영역이나 형용사들이 노년기의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모두 망라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를 들 수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자료를 근거로 노인 이미지를 분석하는 경우, 매스컴에서 다루는 기사의 대부분이 노인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즉,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에서는 사실이나 자료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노인에게 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에서 다룬 자료를 근거로 한 연구에서 노인들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혜, 2002).

또한 노인의 내면적 특성보다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외모·신체모습 또는 움직임의 속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노인에게 대한 인상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Seefeldt, Jantz, Galpur, & Serock, 1977). 노인에게 부정적으로 지각하기가 용이한 또다른 영역은 경제력과 사회적 역할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노인들이 일에서 은퇴함으로써 경제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기의 고립과 연결된다.

노인의 사회활동과 경제력에 관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근원은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와 연계되어 있다. 현대사회는 우수한 능력과 역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대우하는 능력위주의 사회로 활동성, 개인생산성, 미래지향성, 개인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성취증후군(Accomplishment Syndrome) 시대이다(Linden, 1975). 따라서 일과 사회활동에서의 은퇴는 곧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빈곤, 고독, 노쇠, 죽음과 연계되는 개념이 된다. 빈곤, 고독, 노쇠, 죽음은 노화과정에 있는 당사자는 물론 모든 세대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

는데, 이것이 노년기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Bennet & Eckman, 1973).

노인 지각 연구에서 사용된 영역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노인의 특성을 양면적으로(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측정하였는지 역시 문제가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모두 사용한 경우들이 있다(Atchley, 2000; Hummert, Garstka, Shaner, & Strahm, 1995; Palmore, 1999).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에 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단어를 모두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안옥희, 임희경, 김현진, 2002; 정미선, 200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과 관련된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해 긍정적 인상과 부정적 인상을 동시에 측정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노인에 관한 인식이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는 외견상 쉽게 관찰되는 영역(예를 들어, 외모나 신체적 특성)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특성(예를 들어, 지혜로운 판단이나 세상에 대한 포용력, 자상함 등)도 있다. 따라서 지각된 노인 특성을 발달적 관점으로 접근하려면 노인에 관한 지각이나 이미지 형성과 관련되는 다양한 하위 영역들 간에 발달적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특성에 관한 지각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동,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 묻는 것이다(서병숙, 김수현, 1999; 신귀연, 1995; 안옥희, 임희경, 김현진, 2002; 이미정, 1996; 편재희, 1999; 한정란, 2000). 이외에도 신문이나 TV 또는 인터넷 방송 자료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를 분석할 수도 있고(김미혜, 2002; 김미혜, 원영희, 1999; 이은미, 1990), 초·중등 교과서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를 분석할 수도 있다(권명숙, 2002; 윤인경, 2003; 정미선, 2000; 현자영, 2003).

노인 특성 지각에 관한 선행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이 지닌 긍정적 측면을 살필 수 있는 영역이나 문항들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노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노년심리학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관련 영역을 모두 포함시켰다(Belsky, 1999). 즉, 노인에 관한 일반적인 인상, 신체적 특성, 지적 능력, 성격 특성, 적응 및 대인관계, 경제적 능력, 그리고 노인의 가족관계 영역의 7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7개 영역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핀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 다른 영역과도 유사하다(사회복지 영역 제외). 둘째, 노인특성에 관한 지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양극형용사를 사용하였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지각된 노인 특성이 발달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인과 관련된 여러 영역 중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영역(예, 신체적 능력)이 관찰하기 어려운 영역(예, 적응이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영역)보다 더 빨리 부정적으로 지각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지각한 현재 노인들의 특성을 향후 자신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나타날 자신의 미래 노인 특성에 대한 지각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미래 노인이미지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98명(남자 49명, 여자 49명), 중학교 2학년 94명(남자 50명, 여자 44명), 고등학교 1학년 99명(남자 47명, 여자 52명) 및 103명의 노인(남자 26명, 여자 77명)이 지각된 노인 특성 평정에 참여하였다. 노인응답자의 연령을 보면 65세-70세가 41명, 71세-75세가 39명, 76세 이상의 노인이 23명이었다. 조사는 2005년 10월에 실시되었다.

### 지각된 노인 특성의 측정

본 연구에 포함된 지각된 노인관련 특성 영역은 모두 7개 영역으로 1) 노인에 관한 일반적인 인상(노인에게서 받은 일반적인 인상이나 수용 또는 느낌), 2) 노인의 신체적 특성(노인의 생리적 현상이나 외모에 관한 인상 또는 느낌), 3) 노인의 지적 특성(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노인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 또는 인상), 4) 노인의 성격 특성(노인들의 일반화된 개인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것), 5) 노년기 적응 및 대인관계(노인들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그리고 대인

관계가 원만한지에 대한 인상 또는 느낌), 6) 노인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7) 노인과 가족간의 관계(노인들이 가족 내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관한 사람들의 인상) 영역이 포함되었다.

지각된 노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단어와 형용사를 참고로 하여, 노인 관련 7개 특성 영역에 해당되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양극형용사를 선정하였다. 성격 특성을 제외한 6개 영역에서는 각각 5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였고 성격 영역에는 10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였다. 성격 특성과 관련된 형용사가 더 많은 것은 지각된 노인특성이나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형용사들이 주로 성격 특성과 관련된 것이 많아 본 연구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많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노인 특성에 사용된 영역별 형용사의 예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영역별 특성 측정을 위해 사용된 형용사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인상을 재는 문항으로는 “깨끗한-지저분한”, “표정이 밝은-표정이 어두운” 등이 있고, 신체적 특성을 재는 문항으로는 “건강한-허약한”, “활달한-조용한” 등이 있다. 지적 능력을 재는 문항으로는 “판단력이 있는-판단력이 없는”, “지혜로운-어리석은” 등이 있고, 성격 특성을 재는 문항으로는 “유순한-고집 센”, “독립적인-의존적인” 등이 있고, 적응 및 대인관계를 재는 문항으로는 “친절한-불친절한”, “재미있는-재미없는” 등이 있다. 경제적 능력을 재는 문항으로는 “부유한-가난한”, “생산적인-비생산적인” 등이 있고, 가족관계를 재는 문항으로는 “존경받는-무시당하는”, “보고 싶은-보고 싶지 않은” 등으로 총 40개의 형용사가 사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초, 중, 고등학생들과 노인들은

표 1.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분포

	초등	중등	고등	노인	계
남	49	50	47	26	172
여	49	44	52	77	222
계	98	94	99	103	394

표 2. 지각된 노인 특성 측정을 위해 사용된 하위영역 및 각 영역에 속하는 문항의 예

측정 영역	측정 형용사의 예
일반적인 인상	표정이 밝은-표정이 어두운, 당당한-불쌍한
신체적 특성	건강한-허약한, 행동이 빠른-행동이 느린
지적 특성	지혜로운-어리석은, 판단력이 있는-판단력이 없는
성격 특성	적극적인-소극적인, 이해심이 많은-이해심이 없는
적응 및 대인관계	친절한-불친절한, 참을성 있는-성급한
경제적 능력	부유한-가난한, 할 일 있는-할 일이 없는
가족 관계	보고 싶은-보고 싶지 않은, 존경받는-무시당하는

자신들이 지각하는 노인특성을 5점 척도로 된 40개의 형용사에 평정하였다. 노인 특성에 대한 평정이 끝난 후,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앞으로 자신이 노인이 되면 어떤 노인이 될지 자신의 미래노인의 특성을 동일한 40개 형용사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 결 과

### 아동, 청소년 및 노인이 평정한 영역별 지각된 노인 특성

아동과 청소년 및 노인이 평정한 지각된 노인 특성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과 성별 변인간의 어떤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각 연령의 남·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세 집단(65세-70세 41명; 71-75세 39명; 76세 이상 23명) 간에 지각된 노인특성 평정의 어느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세 연령층을 통합하여 노인집단 자료로 분석하였다.

아동, 청소년 및 노인이 평정한 지각된 노인 특성에 대한 7개 영역별 평균과 7개 영역 점수를

종합한 전체 평균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각된 노인 특성이 5점 척도 상에서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아동, 청소년, 및 노인이 지각한 노인의 특성이 부정적이기보다는 약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연령과 평정된 하위 영역에 따라 노인 특성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노인 특성의 하위영역과 연령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평정된 하위 영역은 피험자내 변인이었고, 연령은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변량분석 결과(표 4참조), 평정자들이 평정한 하위 영역에 따라 지각된 노인 특성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6, 2340)=60.71, p<.001$ ), 연령에 따라 지각된 노인 특성 평정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3, 390)=10.81, p<.001$ ). 또한 연령과 하위영역 간에 상호작용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8, 2340)=3.65, p<.001$ ).

지각된 노인 특성의 발달적 탐색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하기로 하겠다. 첫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각된 노인 특성의 전체 평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

표 3. 연령에 따른 지각된 노인특성 영역별 평균점수 및 전체 평균 점수

지각된 노인특성 하위 영역	초등 (n=98)	중등 (n=94)	고등 (n=99)	노인 (n=103)	F	사후 비교 <sup>b</sup>
신체적 특성	3.43( .81)	3.30( .90)	3.10( .82)	3.56( .66)	6.00***	1/3, 3/4,
경제적 능력	3.97( .72)	3.77( .81)	3.33( .78)	3.69( .59)	13.31***	1/3, 2/3, 3/4
성격 특성	3.85( .71)	3.73( .71)	3.49( .71)	3.72( .57)	4.78**	1/3
지적 특성	3.94( .75)	3.69( .89)	3.52(1.36)	3.67( .60)	3.34*	1/3
적용 및 대인관계	4.13( .77)	3.96( .80)	3.46( .75)	3.85( .71)	13.89***	1/3, 2/3, 3/4
가족 관계	4.17( .74)	3.89( .91)	3.62( .77)	3.80( .63)	8.72***	1/3, 1/4
일반적인 인상	4.17( .66)	4.08( .72)	3.67( .75)	3.83( .64)	10.85***	1/3, 2/3, 1/4
지각된 노인특성 전체 평균	3.94( .61)	3.77( .68)	3.46( .65)	3.73( .51)	10.17**	1/3, 2/3, 3/4

<sup>a</sup> 연령별 지각된 노인 특성의 평균점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임.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임.

( )은 표준편차임. \* $p < .05$ , \*\* $p < .01$ , \*\*\* $p < .001$

<sup>b</sup> 사후비교(Scheffe test)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 $p < .05$ )가 있는 집단을 구분하는 선임. 1:초, 2:중, 3:고, 4:노인

표 4. 지각된 노인 특성에 대한 하위영역(7) × 연령(4)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	F값
<b>피험자 내</b>				
하위영역(A) <sup>1</sup>	89.91	6	14.98	60.71***
A×B	16.20	18	.90	3.65***
오차	577.58	2340	.25	
<b>피험자 간</b>				
연령(B) <sup>2</sup>	87.05	3	29.02	10.81***
오차	1047.33	390		

<sup>1</sup> 하위 영역(7)은 일반적인 인상, 신체적 특성, 지적 특성, 성격 특성, 적용 및 대인관계, 경제적 능력, 가족 관계 영역임.

<sup>2</sup> 연령(4)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노인임. \*\*\* $p < .001$

는 것이다. 둘째, 지각된 노인특성 평정에서 하위 영역에 따라 발달적 양상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전반적인 지각된 노인 특성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7개 하위 영역을 종합한 점수인 노인특성 전체 평균을 보면(표 3 참조), 모든 연령층에서 노인의 특성

을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초등:3.94; 중등:3.77; 고등:3.46; 노인:3.73). 그런데 연령에 따라 지각된 노인특성의 전체 평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3, 390)=10.17, p < .01$ ).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지각된 노인 특성 전체 평균에 대한 사후비교(Scheffe Tes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된 노인 특성에 관한 전체 평정에서 가장 덜 긍정적인 평정을 보인 집단은 고등학생이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는 노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정하였고( $p < .05$ ), 노인집단도 고등학생보다 노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지각된 노인 특성의 전체 평정 결과는 노인에 대한 지각이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고등학생 시기임을 말해 준다.

표 3에 제시된 노인 특성 지각의 하위 영역별 사후비교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 영역에서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노인을 덜 긍정적인 것

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영역별 평정에서 노인  
에 대한 중학생의 평정은 초등학생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학  
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경제적 능력, 적응 및 대  
인관계, 그리고 일반적인 인상 영역에서 아직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의 영역별 사후비교 참조). 노인들이 평정한 지  
각된 노인 특성 평균은 중학생의 평정과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생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인상과 가족관계에서만 덜 긍정적이었  
고, 신체적 특성, 적응 및 대인관계, 그리고 경제  
적 능력 영역에서는 고등학생보다 오히려 더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을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덜 긍정적  
으로 평가되는 영역은 노인의 신체 특성이었다.  
즉, 눈에 가장 쉽게 띄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평가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덜 긍정적이  
었다. 하위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영역은 일반적인 인상 영역으로, 노  
인에 대한 일반적 인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노인과 관련된 여러 영역의 특성 지각에서 나  
타난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  
다. 첫째,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노인에 관  
한 지각은 점차 부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이다. 둘째,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지  
각이 획일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역에 따  
라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미래 노인 특성

지금까지는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노인이 현  
재 노인에 관해 어떤 지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이제 미래에 노인이 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노인의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  
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5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노인 관련 하위 영역에서 자신의 미래 노인 특  
성을 평정한 점수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지각  
된 자신의 미래 노인특성 평정에서 초등학생, 중

표 5.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한 자신의 미래노인 특성 평균<sup>a</sup>

지각된 미래노인특성 하위영역	초 (N=98)	중 (N=94)	고 (N=99)
신체 특성	4.62(.48)	4.55(.58)	4.51(.59)
경제적 능력	4.63(.54)	4.51(.52)	4.52(.58)
성격 특성	4.57(.50)	4.52(.51)	4.48(.55)
지적 특성	4.72(.52)	4.68(.57)	4.67(.50)
적응 및 대인관계	4.77(.40)	4.65(.45)	4.66(.50)
가족관계	4.80(.40)	4.69(.51)	4.76(.44)
일반적인 인상	4.79(.34)	4.68(.46)	4.70(.44)
전체평균	4.68(.38)	4.60(.44)	4.60(.41)

<sup>a</sup> 지각된 자신의 미래 노인특성 평균점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임.

( ) 은 표준편차

학생, 고등학생 모두 5점 척도에서 평균 4.6 이상을 보이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들은 모두 자신의 미래 노인특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지각된 노인특성 평가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보였던 고등학생들도(표 3참조) 자신의 미래 노인특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보는 지각된 현재 노인 특성(전체 값)과 자신의 지각된 미래 노인 특성(전체 값)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모두 지각된 자기의 미래 노인 특성이 지각된 현재 노인 특성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초등:  $t(97)=-11.74, p<.001$ ; 중등:  $t(93)=-12.42, p<.001$ ; 고등:  $t(98)=-17.19, p<.001$ ).

## 논 의

노인에 관한 특성 지각이 영역에 따라 점진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에 착안하여, 노인 특성과 관련된 7개 영역을 구분하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노인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영역별 지각된 노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에 따라 7개 하위 영역을 종합한 지각된 노인 특성 전체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전체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고등학생이 가장 덜 긍정적이었고, 중학생은 그 중간 정도였다. 노인들이 보여준 지각된 노인 특성은 중학생과 거의 비슷하였다. 이는 아동기에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노인에 대한 지각이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점차 덜 긍정적으로 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선행연구(김영숙, 2002; 이선자, 1989)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역과 유사하지만 연구가 수행된 것이 거의 20년 전이고, 측정한 도구가 형용사가 아니라 태도진술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즉, 아동기에 노인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청년기에 이르러 점차 덜 긍정적이 되는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지각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선자의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지 않아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필 수가 없었던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 중의 하나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울산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비교집단의 자료가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연구대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농촌과 도시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한 김영숙(2002)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노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귀연(1995)의 연구에서도 아동은 청소년에 비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발달적으로 볼 때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보다 덜 긍정적으로 되는 시기는 고등학교 시기임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령에 따른 하위 영역별 평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첫째, 지각된 노인 특성의 하위 영역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 또는 보다 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쉬운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7개 하위 영역 간 평균을 비교해보면, 신체적 특성은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이었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서 신체적 특성이 노인이미지나 노인 지각에 보다 취약한 영역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상은 지각된 노인 특성 영역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이었다.

노인관련 하위 영역 평정에서 보다 덜 긍정적이거나 보다 더 긍정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지각된 노인 특성에서의 발달적 추이와 연관시켜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지각된 노인 특성 하위 영역 중 보다 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이 발달적으로 보다 일찍 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기여한다면, 왜 그러한 하위 영역이 더 일찍 인식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발달적 해석을 해보자면, 노인과의 직접 또는 간접 경험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속성으로부터 노인에 대한 특성 지각이 먼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외견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노인이 지닌 다른 특성에 비해 초등학생들에게 더 먼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제안이 가능하다.

지각된 노인 특성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초등학생들에게서도 신체적 특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가장 덜 긍정적으로 평정된 본 연구 결과와 노인에 대한 태도 중 신체적 특성에 대한 태도가 가장 덜 긍정적이라는 이선자(1989)의 결과

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해 준다. 따라서 발달적 비교를 하지 않고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노인 이미지를 측정하는 연구들에서 보고되는 노인 이미지의 부정적 특성은 주로 신체적 특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Seefeldt et al., 1977).

노인은 일에서 은퇴하는 시기이므로 일이 없기에 돈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다. 또한 성취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지각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Linden, 1975). 노인의 기억력 감퇴 역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노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추론도 비교적 쉽게 부정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가족관계 영역), 노인들의 적응이 원활한지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적응 및 대인관계 영역) 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는 비교적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관한 일반적 인상은 고등학생들에게서도 비교적 긍정적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점진적으로 형성되며, 관찰하기 용이한 영역에서부터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연령에 따른 영역별 노인 특성 지각에서의 변화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관찰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와 중년기를 포함시키지 않아 청년기 이후부터 노인기까지 노인에 대한 지각의 변화를 살필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노인 특성에 대한 노인의 평가는 고등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

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노인기에 들어 부정적인(평균 2.76)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평정한 지각된 노인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구들 간에 보이는 이러한 차이에 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또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현재 노인에 대한 지각된 특성은 비교적 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자신의 지각된 미래 노인 특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아동 및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노인이 되면 매우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노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약 20년 전에 이루어진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 “노인은 나하고 상관없이 멀게만 생각된다”는 문항에 대해 노인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5점 척도 상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 노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실감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은 지금의 노인들과는 다른 노인으로 살 것이라는 희망과 아울러 자신과 현재 노인을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문제는 자신들은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시대의 젊은이들도 그들을 자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현재 노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살펴면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노인들 자신의 지각에 괴리가 있는지, 괴리가 있다면 그 괴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들이 스스

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해와 인식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노인 특성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지각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만의 결과는 아니다.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했던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도 노인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5점 척도 상에서 평균 3점 이상을 보였다. 본 연구와 일부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관한 지각된 이미지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과 더욱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자신의 미래 노인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노인에 대한 인식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보고되고 있지만(윤진, 조석미, 1982; 조명희, 1974; 차용은, 1981; Butler, 1975; McTavish, 1971; Nuessel, 1982; Seefelt, Jantz, Galpur, & Serock, 1977), 노인들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통제감을 유지하고(Lawton, Kleban, Rajagopal, & Dean, 1992), 자기효능감도 유지하고 있으며(Brandtstadter & Rothermund, 1994), 이해심이 많고, 행복해 하며,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젊은이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Atchley, 2000). 노인들이 지닌 이러한 긍정적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고령화에 대비하는 개념에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이제 는 노인문제의 핵심을 “노인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보다는 “노인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역량이 무엇 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긴 삶의 여정을 거치면서 노인들이 습득한 기술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인들이 유의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필선 (1989).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명숙 (2002).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반영된 노인이미지.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 (2002).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이미지 분석-오마이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2-133.
- 김미혜, 원영희 (1999). 새로운 노인이미지 정립을 위한 노인 광고: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2), 193-214.
- 김영숙 (2002). 중고등학생의 노인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1(3), 75-89.
- 서병숙, 김수현 (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2), 97-111.
- 신귀연 (1995). 아동과 청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옥희, 임희경, 김현진 (2002).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이미지에 관한 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11(40), 347-355.
- 윤인경 (2003). 교과서의 노인에 관한 내용 분석 및 교사용 노인교육 자료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윤진, 조석미 (1982). 가족 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 1, 75-85.
- 이미정 (1996).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자 (1989). 발달학 측면에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 93-105.
- 이은미 (1990).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 드라마와 코메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선 (2000). 고등학교 가정교과 노인 관련 내용이 여고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 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희 (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태도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용은 (1981).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전주대학 논문집, 9, 239-262.
- 편재희 (1999). 농촌 청소년이 지각하는 노인 이미지.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현자영 (2003).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tchley, R. C. (2000).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worth Thompson Learning.

- Belsky, J. (1999). *The psychology of aging: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Brooks/Cole.
- Bennet, R. & Eckman, J. (1973). Attitudes toward aging : A critical examination of recent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In C. Eisdorfer & M. P. Lawton (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 C.
- Brandtstadter, J., & Rothermund, K. (1994). Self-percepts of control in middle and later adulthood: Buffering losses by resealing goals. *Psychology and Aging, 9*, 265-273.
- Butler, R. (1975). *Why survive: Being old in American*. New York: Harper and Row.
- Crandall, R. C. (1980). *Gerontology: A behavioral science approach*,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 Hummert, M., Garstka, T., Shaner, J., & Strahm, S. (1995). Age and typicality of judgements of stereotypes of the elderly: perceptions of elderly and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 217-226.
- Lawton, M. P., Kleban, M. H., Rajagopal, D., & Dean, J. (1992). Dimensions of affective experience in three age groups. *Psychology and Aging, 7*, 171-184.
- Linden, M. E. (1975). Effects of social attitudes on the mental health of aging. *Geriatrics, 12*, 109-115.
- McTavish, D. G. (1971). Perceptions of old people: A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ndings. *The Gerontologist, 11(4)*, 90-101.
- Nuessel, F. H. (1982). The Language of Ageism. *The Gerontologist, 22(3)*. 273-275.
- Palmore, E. (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Seefeldt, C. R., Jantz, R. K., Galpur, A., & Serock, K. (1977).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implic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 302-310.
- Ward, R. A. (1979). *The aging experience: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New York: Lippincott Co.

---

1차 원고 접수: 2007. 4. 12

수정 원고 접수: 2007. 5. 9

최종 게재 결정: 2007. 5. 10

# Comparisons of the Perception of the Aged Rated by Children, Adolescent, and the Aged

Young-Sook Chong

In-Ju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o compare the perceived image of the aged, children, adolescent, and the aged were asked to rate their perception of the aged in seven dimensions. 103 of the aged and 291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Ulsan city participated this study. They also except the aged group rated their future image of the ag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older the subjects are, the less positive the total perceived image of the aged was. Of the seven dimensions, the perception of physical dimension of the aged was the least positive from earlier. Perceived general image of the aged was the most positive till later. It was found that 291 students' perception of themselves as the aged in the future was much more positive than perceived image of the aged.

*keyword* : *perceived image of the aged, seven dimensions, future image of the age*